

기경팔맥과 턱관절 균형의 상응관계

손인철, 안성훈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한국전통의학연구소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mporomandibular Joint (TMJ) and Eight Extra Meridians

In-Chul Sohn, Seong-Hoon An

Departmen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Korean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ra meridians and the temporomandibular joint.

Methods: Literature review on the eight extra meridian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were performed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temporomandibular joint.

Results: Extra meridians are crucial in the maintenance of the balance of the whole body, especially the structural balance of the anterior-posterior, left-right, superior-inferior, and interior-exterior regions. The foundation of extra meridians occurs in the lower abdominal area and the innate qi.

Conclusions: Extra meridians are important players in the maintenance of the balance and harmony within the body, and may function cooperatively with the temporomandibular joint in its role to maintain the yinyang balance within the body.

Key Words: Extra meridians, Temporomandibular joint, Yinyang balance, Structural balance

緒 論

기경팔맥(奇經八脈)¹⁾은 先天之元氣에 근원하여, 인체의 臟腑를 튼실하게 하고, 四肢를 멀쩡하게 하는 데 주요작용을 하는 경맥으로, 하복부 단전을 중심으로 전신에 관여하여 인체생명의 바탕을 이룬다.

턱관절²⁾은 두면부의 아래에 위치하면서 두면부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뇌와 근골격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케 하고, 음식의 저작과 언어·개구 작용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사람이 출생하여 모유를 먹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구조와 기능면에서 생존의 기본을 이루는 턱관절은 인

체의 유일한 양측성 관절로서, 턱관절의 이상은 뇌의 불균형 뿐 아니라 인체에 전반적인 균형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기경팔맥은 人體의 전후 中央에 분포된 任脈·督脈과 臍中을 중심으로 縱으로 분포된 衝脈, 橫으로 분포된 帶脈 그리고 人體의 양측에 분포된 陽蹻脈·陰蹻脈과 陽維脈·陰維脈의 8종의 경맥³⁾으로, 인체생명의 근본인 先天之氣의 근원인 하단전에 근거하여 인체 생명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케 한다. 先天之氣에 근원하는 기경팔맥은 後天之氣에 근원하는 十二經脈의 氣血을 조절하여 전신의 평형을 유지하는 작용¹⁾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경팔맥이 인체의 균형과 조화에 특별히 관여하여 전신의 구조와 기능에 작용하는 바가 턱관절의 기능과 상응하는 작용이 있음을 파악하여 기경팔맥이 갖는 특징을 살펴본 후, 기경팔맥과 턱관절 균형의 상응관계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투고일: 2012년 11월 19일, 심사일: 2012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0일

교신저자: 손인철,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Tel: 063-850-6448, Fax: 063-857-6458

E-mail: ichsohn@wku.ac.kr

이 논문은 2012년 턱관절균형의학회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기경팔맥의 특징

1. 기경팔맥¹⁾은 하복부 단전을 근원하여 인체의 수화작용을 도와주며,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인체 구조의 유지 및 기능에 관여한다. 水火는 인체에서 相濟의 대상으로 건강하여 水火相濟함을 心腎相濟라고 하며 水升火降이라고도 한다. 任脈 督脈 衝脈은 下腹部의 丹田에서 起始하니, 丹田은 불의 밭으로 生命力の 근원이라, 水火相濟가 되면 火는 下降하여 丹田에 住하고 水는 위로 올라 마음을 맑게 하여 심신을 안정되게 하여, 全身의 均衡과 調和를 이룬다.

2. 기경팔맥은 인체의 선천지 원기에 근원하여 인체 본래의 장부를 튼실하게 하고 사지를 멀쩡하게 하는 구조에 특별한 기능을 발휘한다. 기경팔맥의 유주를 보면 帶脈은 臍中을 중심으로 丹田을 橫으로 감싸고 나머지 7脈은 下로부터 上으로 向上하여 전신에 分布한다. 奇經八脈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任脈과 督脈, 衝脈은 起始部位가 下腹部의 中極之下 胞中)라 하여 先天之 生命의 根源인 下丹田 부위에서 氣가 출한다고 하였다(《素問·骨空論》 任脈者, 起於中極之下, 以上毛際, 循腹裏, 上關元, 至咽喉, 上頤循面入目). 그 氣는 인체 生命의 근원으로 原氣 곧 腎間動氣에 해당한다. 帶脈은 臍中을 중심으로 하복부를 감싸고 陽維脈과 陰維脈, 陽蹻脈과 陰蹻脈도 人體에서 陰陽의 均衡을 유지할 때 下腹部의 丹田을 중심으로 全身의 均衡과 調和를 이룬다.

陰維脈⁴⁾은 大腿部 안쪽 모서리로 循行하여 上行하고, 小腹으로 들어가 府舍穴에서 足太陰 足厥陰 足少陰 足陽明과 會合하고(“陰維脈, 上循股內廉하여 上行하고 入小腹하여 會足太陰 厥陰 少陰 陽明於府舍하고...”), 陰蹻脈의 유주에서 “西南鄉(下丹田)은 곧 坤地(小腹)와 尾閭의 前方과 膀胱의 後方과 小腸의 아래와 靈龜(陰器)의 윗부분으로 이곳은 天地(人體)에서 날마다 생성되는 精力과 陰陽의 根氣가 생산되는 곳”이라 하였다(“要知면 西南之鄉은 乃昆地라 尾閭之前과 膀胱之後와 小腸之下와 靈龜之上으로 此는 乃天地에 逐日(축일: 날마다)所生의 炁根(기근:정력, 근기)과 產鉛之地也어늘 醫家가 不知有此리오”).⁴⁾

張紫陽(이름은 伯端, 字는 平叔, 號는 紫陽真人 또는 紫陽이다. 北宋代(984~1082)의 저명한 仙術家로 仙術 중 南派의 首領이었다. 著書로 《悟真篇》이 傳한다.)의 八脈經에 云 “八脈者는 衝脈이 在風府穴下하고, 督脈이 在臍後하고, 任脈이 在臍前하고 帶脈이 在腰하고, 陰蹻脈이 在尾閭前과 陰囊下한다 하여, 八脈者는 先天之大道의 根本이라” 하여 “奇經八脈이 先天的인 自然法則의 根本이고 一氣의 근本이라” 하였다(八脈者 先天大道之根이오 一炁之祖라).

따라서 奇經八脈은 선천지생명의 原氣에 근원하며 심이경맥은 기경팔맥의 작용에 힘입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3. 기경팔맥¹⁾은 인체에서 심이경맥과 상보적 관계를 유지한다. 인체에서 생명유지의 기본으로 원기를 중시하는 것은 원기가 힘의 중심이 되고 근원이 되기 때문이며, 원기의 근원을 丹田이라 하였고, 하복부의 丹田이 生命의 탄생과 유지는 물론 均衡과 調和의 중심으로 인정하였다. 《醫學入門·先天圖說》⁵⁾에서는 “人之百病皆由水火不交”라 하여 사람의 모든 병이 水火와 陰陽·氣血의 불균형 부조화에서 온다고 하고 水火相濟의 상태를 가장 정상 상태로 보았다 (“사람의 모든 병이 다 水火의 不交라. 故로 以後天坎離로 繼之라, 血은 屬水하고 氣는 屬火하니 血陰而氣陽也라 離中の 虛에 眞陰이 存焉하고 坎中の 滿에 眞陽이 寓焉하니 陰陽虛實之機에 醫道는 思過半矣니라.”).

기경팔맥과 심이경맥과의 관계는 인체의 생명관계에서 보면 本末의 격이요, 母子의 관계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상호관계를 “十二經脈 중에 氣血이 차서 넘칠 경우에는 奇經八脈으로 유주하여 貯蓄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4. 기경팔맥¹⁾은 심이경맥을 분류하고 조합시키며 주도 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독맥은 인체의 諸 陽經脈이 모두 모이는 곳이며, 동시에 腎·腦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足厥陰肝經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주된 기능은 陽氣를 통솔하고, 眞元을 統攝하는 것이다. 任脈은 陰經의 脈氣를 妊養調整하는 기능을 가진다. 인체의 氣는 陽이고 血은 陰이며, 女子의 懷胎·月經·帶下의 諸病은 陰血과의 관계가 매우 깊다. 고대의 의서에서는 “任主胞胎”(婦人良方)라 하여, 임맥이 諸陰經에 대하여 主導하고 統率하는 가지고 있음을 가리켰다. 衝脈은 胞中에서 기시하였으므로 “血海”라 하며, 十二經脈, 五臟六腑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十二經脈之海’, ‘五臟六腑之海’라고도 부른다. 衝맥이 이러한 중요작용을 가지게 되는 까닭은 족소음경과 족양명경과의 연계가 있다.

本論 및 고찰

1. 독맥과 턱관절 균형의 상응관계

1) 독맥의 유주 특징

독맥은 양맥지해(陽脈之海)로서, 少腹 아래의 橫骨 중앙에서 시작한다. 턱관절과의 관계는 제1, 2경추에서와 구순부 주위에서 균형과 조화에 작용한다. 督脈의 分布徑路는 4條이다.

그 중 중심경맥은 하복부의 포궁에서 기시하여 흉배부의 신주를 지나 2경추하의 아문과 1경추하의 풍부에서 후두부와 경추 및 목의 균형을 조절하며, 수구, 태단, 은교에서 췌턱에 연계하여 관절작용에 기여한다(Fig. 1. 대학경락경혈학 각론).

다른 하나는 하복부에서 기시하여 直上하여 臍를 통과해서 上向하여 심장으로 連貫되고, 喉部로 진입하여 위로 턱에 이르며 口脣을 돌아 眼의 하부 중앙부위에 이르게 됨으로서 상하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素問·骨空論》⁶⁾: “督脉者……其少腹直上者, 貫臍中央, 上貫心, 入喉, 上頤, 環脣, 上繫兩目之下中央.”
 《十四經發揮》⁷⁾: “督脉者……其少腹直上者, 貫臍中央, 上貫心, 入喉, 上頤環脣, 上系兩目之中.”

- <督脈의 유주 요약표> (Table 1. 대학경락경혈학 各論 下).
- 胞中→會陰→風府→絡腦→靦交: 本經 (督脈 제1노선)
 - 前陰→會陰→合足少陰腎經→腎俞 (屬腎): 合足少陰 (督脈 제2노선)
 - 睛明→百會→入絡腦→ 腎俞 (絡腎): 合足太陽 (督脈 제3노선)
 - 會陰→廉泉→承漿→靦交→兩目下部: 合任脈 (督脈 제4노선)

2) 독맥과 턱관절 균형

督脈의 유주와 그 요약표를 보면 독맥은 하복부에서 힘의 중심을 이뤄줌과 동시에 제1노선과 제4노선이 턱관절의 균형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특히 제1노선은 경추 1,2추에서 턱관절의 균형에 관여하며, 제4노선은 임맥과 더불어 유주하면서 턱관절의 상하중심 기능을 돕게 된다. 이러한 독맥의 유주 특성은 척추의 중심을 유주하면서 인체 내 음양의 균형 및 후두부와 경추 및 목의 균형을 조절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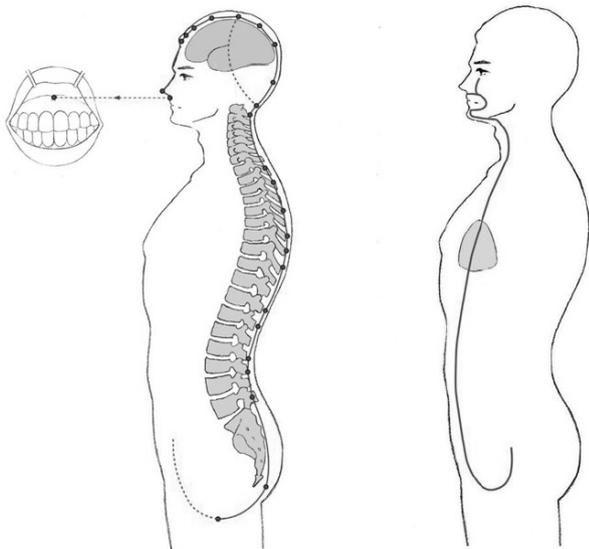


Fig. 1. 턱관절을 중심한 독맥의 유주도(독맥 제1노선과 제4노선).⁸⁾

2. 임맥과 턱관절 균형의 상응관계

1) 임맥의 유주

任脈의 유주는 두 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Fig. 2). 임맥의 중심 줄기는 하단전의 중심치인 하복부의 포궁(中極之下)에서 기시하여 전음과 후음간의 회음부에서 음모부위로 올라가 관원 신궤과 흥복부의 정중선을 따라서 직상하여 인후부에 이르고 턱관절 하의 염천에 이르러 턱관절을 받쳐주며, 위로 올라 하악의 중심부인 승장에서 중지하며, 그 가지는 顏面을 지나 동공직하의 승읍에 이른다.

《素問·骨空論》⁶⁾: “任脉者, 起于中極之下, 以上毛際, 循腹裏, 上關元, 至咽喉, 上頤, 循面入目.”

《靈樞·五音五味》⁹⁾: “衝脈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脊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右上行, 會於咽喉, 別而絡唇口.”

《難經·二十·八難》¹⁰⁾ “任脈者, 起於中極之下, 以上毛際, 循腹裏, 上關元, 至咽喉.”

《奇經八脉考》¹¹⁾: “任脉爲陰脉之海. 其脉起于中極之下, 少腹之內, 會陰之分, 上行而外出, 循曲骨, 上毛際, 至中極, 同足厥陰太陰少陰并行腹裏, 循關元, 歷石門, 氣海, 會足少陰衝脉于陰交, 循神闕水分, 會足太陰于下脘, 歷建里, 會手太陽少陽足陽明于中脘, 上上脘巨闕鳩尾中庭膻中玉堂紫宮華蓋璇璣上喉嚨會陰維于天突, 廉泉, 上頤循承漿與手太陽督脉會, 環脣上至下斷交, 復出分行, 循面, 繫兩目下之中央, 至承泣而終”

2) 임맥과 턱관절균형

임맥은 유주의 특성상 하복부의 중극지하(中極之下)인 포궁에서 기시하여 복부정중선을 거쳐 염천에서 턱관절을 감싸고 오르며 구순부 주위를 지나 눈으로 들어간다. 턱관절의 균형과 조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때 생명의 근원인 하복부는 임맥의 근원이요, 바탕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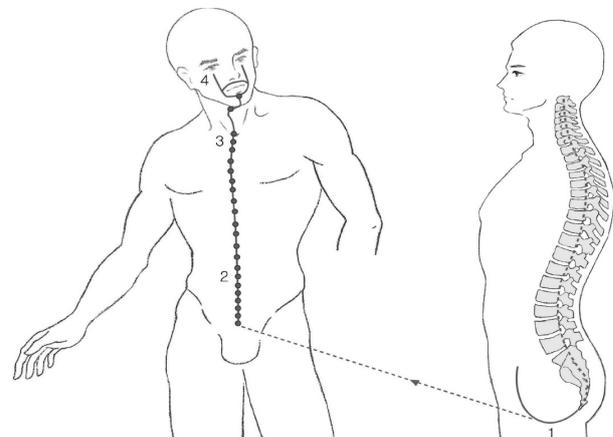


Fig. 2. 임맥의 유주도(대학경락경혈학).⁸⁾

어 경맥의 유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임맥의 기시부인 하복부는 전신의 중심점을 이루어서 단전이라고 칭하는바, 임맥은 하복부의 하단전과 중단전을 지나 염천부위에서 턱을 지탱하는 힘의 중심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

3. 충맥과 턱관절 균형의 상응관계

1) 충맥의 유주

충맥은 기충으로 발하여 족양명을 좇아 족소음과 더불어 병행한다. 이 두 개의 경맥은 위와腎의 氣를 받음으로서 인체에서 선천과 후천의 眞氣를 함축(涵蓄)하여 십이경맥 지해를 이루고 인체내 경맥 장부의 기혈을 저장하고 기른다. 포중(胞中)에서 기시하여 전신에 분포하는 충맥은 세 줄기로 구분하여 유주를 설명할 수 있다(Fig. 3).

(1) 첫 번째 줄기는 任脈과 함께 胞中에서 기시하여 氣街로 淺出한 후 足少陰을 따라 胸中에 達하고, 그 가지는 咽喉로上行하여 出한 다음 脣口에 絡한다.

(2) 두 번째 줄기는 胞中에서 分出하여 腹腔後壁을 따라 脊柱內를 上行하여 背部를 순행한다.

(3) 세 번째 줄기는 氣街에서 出하여 大腿內側을 따라 膝窩中에 進入한 후 脛骨內緣을 지나 足少陰과 並行하여 內後面에 이르고 足底에 到達하며 그 別脈은 內의 後에서 分出하여 足背를 따라 足大趾에 分布하여 足厥陰肝의 脈氣와 相通한다.

衝脈은 臟腑經絡의 氣血을 涵蓄하여, 인체의 머리에서 발까지 通하여 十二經脈의 氣血을 받으므로 “十二經脈의 바다”, “五臟六腑의 바다”, “血의 바다”라 불리운다. 또한 衝脈은 任脈과 더불어 生養의 根本을 이룬다. 충맥은 腎間動氣인 丹田에서 시작하여 全身의 氣血대사를 주관하는 경맥으로 현대 해부학의 大動脈 血行대사와 관련이 깊을 것

으로 본다.

<衝脈의 유주 요약표>

- 胞中→氣街→胸中→咽喉→脣口: 合足陽明, 足少陰, 任脈
- 胞中→腹腔後壁→脊柱→背部: 合督脈
- 氣街→足底, 足背: 合足陽明, 足少陰, 足厥陰

《素問·骨空論》⁶⁾: “衝脈者起於氣街, 少陰之經, 俠齊上行至胸中而散.”

《靈樞·動脈》⁹⁾: “衝脈者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於腎下出於氣街, 循陰股內廉, 邪入中, 循脛骨內廉, 少陰之經下入內之後, 入足下其別者斜入, 出屬上入大指之間, 注諸絡以溫足脛, 此脈之常動者也.”

《靈樞·五音五味》⁹⁾: “衝脈任脈皆起於胞中, 上循脊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右上行, 會於咽喉, 別而絡脣口.”

《十四經發揮》⁷⁾: “衝脈者, 與任脈皆起於胞中, 上循脊裏, 爲經絡之海, 其浮于外者, 循腹上行, 會于咽喉, 別而絡脣口.”

2) 충맥과 턱관절 균형

衝脈은 십이경맥지해(十二經脈之海)로서 선천지정에 관계 깊은 족소음신경과 후천지기에 관계 깊은 족양명위경과 족궤음간경의 유주 및 기능과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충맥은 인체에서 十二經脈之海 곧 血海로서 인체의 기혈순환과 수화작용을 통한 전신의 기능에 두루 관여하며, 하복부에서 기시하여 턱의 주위 및 兩方을 타고 동공부위에 이른다.

충맥의 분포경로에는 크게 5條가 있어서 전신의 기능에 관여한다. 턱관절과 관계 깊은 충맥의 경로는 第2分支로서 임맥과 함께 포중에서 기시하여 足少陰腎經과 나란히 하여 前行하고 任脈 양측의 足少陰腎經을 따라 상행하여 胸部에 이르며 分支하여 胸에 분포하며 그 主幹線은 상행하여 氣管 양측을 통하여 인후(목구멍)에 분포하며, 인후에서 상행하여, 下頷을 돌아 상행하고 口脣에 분포한다. 충맥은 전신의 기능에 두루 관여한다.

4. 대맥과 턱관절 균형의 상응관계

1) 대맥의 유주

帶脈은 제2腰椎에서 나와 제11肋骨 아래에서 足少陰腎經 別絡의 脈氣를 받아들이고 腰腹을 순행하여 비스듬히 복부 앞쪽을 돌아 몸을 한바퀴 순환한다. 인체에서 유일하게 허리띠 모양(環形)으로 분포하는 경락노선이다.

《靈樞·經別》편에 보면 帶脈의 명칭인 “上至腎, 當十四椎出屬帶脈”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帶脈 분포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難經二十八難》에서 “迴身一周”라는 기록이 있다. 明代 李時珍의 《奇經八脈考》에서는 “帶脈則橫圍於腰 狀如束帶 所以總約諸脈者也”라 하고, 楊上善¹⁴⁾은 “帶脈總束諸脈”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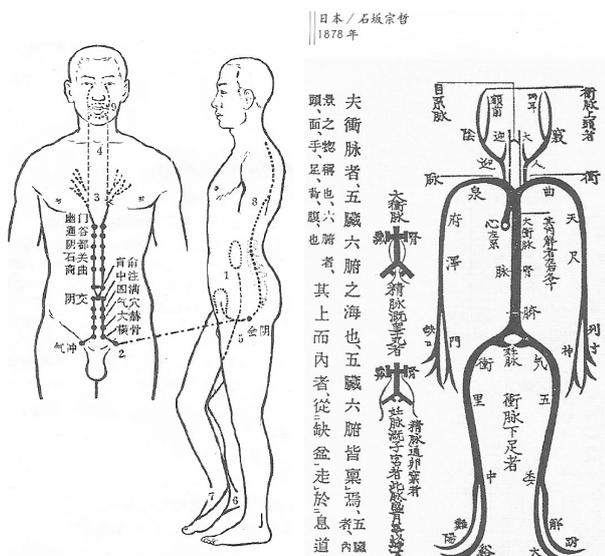


Fig. 3. 衝脈의 경맥유주도(圖. 상해중의학원 편. 침구학,¹²⁾ 中國鍼灸四大通鑿에 있는 《古診脈說》 衝脈圖.¹³⁾

《靈樞·經別》⁹⁾: “當十四椎出屬帶脈。”
 《難經·二十八難》¹⁰⁾: “帶脈者, 起於季脅, 迴身一周”
 《奇經八脈考》¹¹⁾: ‘帶脈則橫圍於腰 狀如束帶 所以總約諸脈者也.’

2) 帶脈과 턱관절 균형

帶脈은 腰주위를 돌아 上下로 直行하는 經脈들을 約束한다. 곧 하복부가 중심이 되어 인체 내 모든 經脈을 約束(約束)하여 전신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인체내 모든 경을 묶어 준다는 것은 전신의 기를 하복부에 모아서 힘의 중심을 이룬다는 것이며, 이 대맥의 분포 및 기능은 하복부의 단전과 배부의 척추분포 및 작용과 깊은 상응관계가 있다. 足少陰經別이 오금에서 분리되어 太陽에 합하고 위로 腎에 이른 후 十四椎의 帶脈으로 나온다고 하였으니, 帶脈은 足少陰腎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대맥은 하복부 및 14추를 전후한 척추를 묶어줌으로서 하복부 단전이 인체 힘의 중심점이 되게 하여, 전신 및 척추부위에 힘을 모아주고, 그 힘은 Lovett반응계의 작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Fig. 4) 척추에 작용하여 뇌척주 기능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경추 관절의 균형과 조화에도 크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 대맥은 하단전의 기능 강화에 기여하여, 온 몸의 중심을 잡아 준다.

● Lovett 반응계에 의하면 경막의 부착에 의해 C1과 L5, C2와 L4, C3와 L3는 상호 같은 방향으로 자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난다.(coupling movement) 예를 들어 C1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L5도 오른쪽으로 같은 각도만큼 회전하며 C4와 L2부터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같은 각도만큼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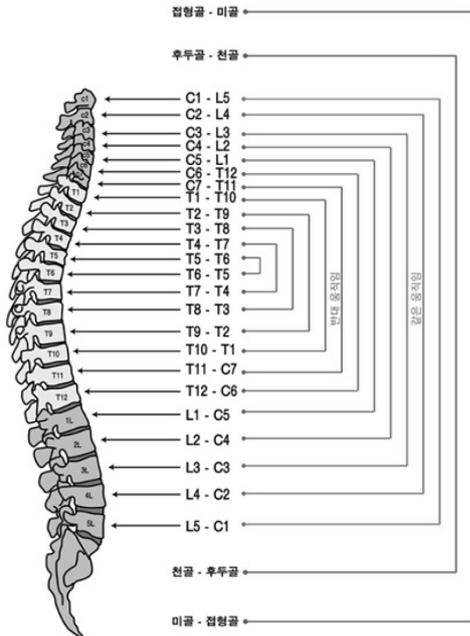


Fig. 4. Lovett 반응계.

5. 양유맥·음유맥과 턱관절 균형의 상응관계

1) 양유맥 음유맥의 유주

양유맥은 諸陽經이 교회하는 곳에서 기시하여 작용하고, 음유맥은 諸陰經이 교회하는 곳에서 기시하여 작용한다. 陽維脈은 手足三陽經 및 督脈과 交會하여 모든 陽을 망라하며 특히 足太陽膀胱經, 足少陽膽經과의 연계가 밀접하고 陰維脈은 足三陰, 手厥陰心包經 및 任脈과 交會하여 모든 陰을 망라하며 특히 足太陰脾經, 足少陰腎經과의 관계가 밀접하다.

양유맥은 후두부에서 風池穴이 인접한 부위의 경추 및 승모근의 작용에 주로 관여하고, 陰維脈은 足少陰腎經의 築賓에서 시작되어 下肢의 내측을 따라 순행하여 少腹으로 들어 간 후 옆구리와 늑골을 지나 上行한다. 횡격막과 胸腔을 뚫고 지나 咽喉에 도착한 후 천돌과 臑에서 任脈과 會合한다. 陰維脈이 유주하는 穴은 築賓, 衝門, 府舍, 大橫, 腹哀, 期門, 天突, 廉泉이다(Fig. 5. 대학경락경혈학).

《十四經發揮》⁷⁾: “陰維, 維於陰, 其脉起於諸陰之交……其脉氣所發者, 陰維之鄰, 名曰築賓, 與足太陰會于腹哀·大橫, 又與足太陰·厥陰會于府舍. 期門, 與任脉會于天突·廉泉.”
 《奇經八脈考》¹¹⁾: “陰維起于諸陰之交, 其脉起于足少陰築賓穴, 爲陰維之鄰, 在內踝上五寸臑肉分中, 上循股內廉, 上行入小腹, 會足太陰·厥陰·少陰·陽明于府舍, 上會足太陰于大橫腹哀, 循脇肋會足厥陰于期門, 上胸膈挾咽, 與任脉會于天突廉泉, 上至頂前而終.” “陽維起于諸陽之會, 其脉發于足太陽金門穴, 在足外踝下一寸五分, 上外踝七寸, 會足少陽于陽交, 爲陽維之鄰, 循膝外廉, 上髀厭, 抵少腹側, 會足少陽于居膠, ……過肩前, 與手少陽會于臑會·天膠, 却會手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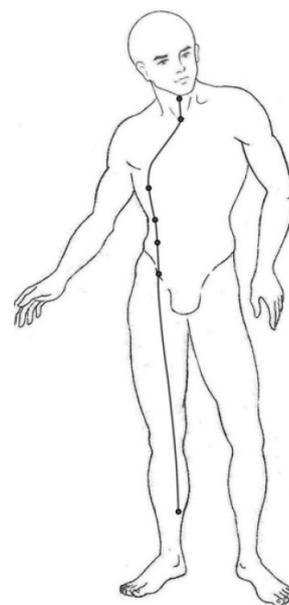


Fig. 5. 陰維脈의 경맥분포 및 유주도(대학경락경혈학 총론 p243).

少陽足陽明于肩井，入肩後，會手太陽陽蹻于臑兪，上循耳後，會手足少陽于風池，上腦空·承靈·正營·目窓·臨泣，下額與手足少陽陽明五脉會于陽白，循頭，入目，上至本神而止，凡三十二穴。”

2) 양유맥 음유맥과 턱관절균형

“維”란 연결과 그물의 의미로 維脈은 全身 陰陽의 氣를 망라 하는 그물과 같은 脈이다. 곧 維脈은 人體 좌우의 경맥 및 구조물을 엮어매준다. 음유맥은 하지에서 기시하여 하복부 단전을 중심한 陰經부위를 유주하면서 양유맥과 함께 음양·후·좌우의 구조물과 경맥을 묶어주어서 人體의 모든 구조물과 경맥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며, 음유맥의 종지혈은 頰前인데, 이부위에서 頰맥을 중심한 모든 음경을 묶어주고, 그 관계가 턱관절에 이르러 음양유맥이 전후 좌우로 지탱의 중심을 이루면서 모든 구조물이 흩어지거나 쏠리지 않도록 엮어 매주는 기능을 한다. 人體내에서 양유맥, 음유맥은 人體내 陰陽 兩經脈의 상호관계를 調節하여 人體의 平衡과 協調를 유지해주며, 그러한 기능은 턱관절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6. 양교맥·음교맥과 턱관절 균형의 상응관계

1) 양교맥과 음교맥의 유주

양교맥은 상행하여 下額을 거쳐, 口角 외측에서 直上하여 目下에 이르며, 비스듬히 순행하여 內眼角에 이르러 足太陽膀胱經과 서로 會合한다. 內眼角에서 起始하며 상행하여 側頭를 거쳐 하행하여 風池穴에 이르고, 風池穴에서 頭蓋骨 내부에 진입하여 뇌에 분포한다(Fig. 5). 음교맥은 상행하여 陰部를 지나 胸部 안쪽을 순행하여 鎖骨上窩의 결분에 이르며, 頸前 양측의 喉嚨을 沿하여 人迎穴의 前面으로 出해서 面部인 觀部의 내측을 지난다(Fig. 6. 經絡圖解).

《靈樞·脉度》⁹⁾: “蹻脉者，少陰之別，起于然骨之後，上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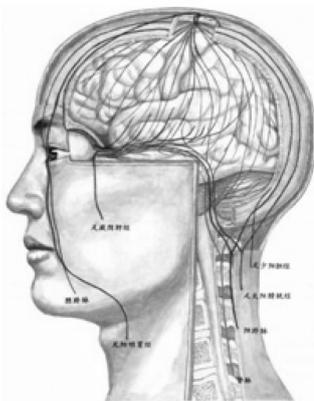


Fig. 6. 두면부 전후에 분포한 음교맥과 양교맥(경락도해).¹⁴⁾

蹻之上，直上循陰股，入陰，上循胸裏，入缺盆，上出人迎之前，入頰，屬目內眦，合于太陽陽蹻而上行。”

《難經·二十八難》¹⁰⁾: “陽蹻脉者，起于跟中，循外踝上行，入風池。” “陰蹻脉者，亦起于跟中，循內踝上行至咽喉，交貫衝脉。” 《奇經八脉考》¹¹⁾: “陰蹻者，足少陰之別脉，其脉起于跟中足少陰然骨之後，同足少陰循內踝下照海穴，上內踝之上二寸以交信爲郛，直上循陰股入陰，上循胸裏，入缺盆，上出人迎之前，至咽喉交貫衝脉，入頰內廉，上行屬目內眦，與手足太陽·足陽明·陽蹻五脉會于睛明而上行” “陽蹻者，足太陽之別脉。其脉起于跟中，出于外踝下足太陽申脉穴，……上外踝上三寸，以跗陽爲郛，直上循股外廉，循脇後胛上，會手太陽陽維于臑兪，上行肩膊外廉，會手陽明于巨骨，會手陽明少陽于肩髃，上人迎夾口吻，會手足陽明任脉于地倉，同足陽明而上行巨髃，復會任脉于承泣，至目內眦與手足太陽足陽明陰蹻五脉會于睛明穴，從睛明上行入髮際，下耳後，入風池而終。”

2) 양교맥·음교맥과 턱관절 균형

蹻脈의 蹻는 ‘발을 들어 높은 곳을 넘는다’는 의미로 蹻脈은 人身의 運動기능을 主持한다. 人體의 均衡과 조화를 위한 전후좌우의 運動기능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다. 陰蹻脈, 陽蹻脈은 모두 足上에서 起하여 上行하는데, 陰蹻脈은 內側에서 起하고, 陽蹻脈은 外側에서 起하여 陰陽이 협조한다. 따라서 양교맥, 음교맥은 人體내 음양의 편성편식을 조절하고, 人體의 상하·전후·좌우 경맥의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서 전신의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특히 음교맥은 內踝하의 조해에서 외과하의 신맥과 좌우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행하여 陰部를 지나 단전을 경유하면서 전신 및 좌우의 힘의 중심을 이루면서 상행하여 胸部 안쪽을 순행하여 鎖骨上窩의 결분에 이르며, 頸前 양측의 喉嚨을 沿하여 人迎穴의 前面으로 出해서 面部에 상행하여, 口角과 鼻旁을 거쳐 內眼角에 精明부위에 이른다. 곧 하지부에서 이미 외과하와 내과하에서 양교맥과 음교맥의 균형을 통해 뇌척추의 조절을 하고, 단전부위에서 음교맥이 양교맥과 함께 전후 좌우 힘의 중심을 이루게 되어 자연스럽게 전두부에서 음교맥이 정명에 이르고 후두부에 양교맥이 풍지에 이르러 人體내 상하 표리 음양 전후좌우의 균형을 이루게 함을 통해 전신의 균형과 조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저작의 기능 등 턱관절 운동기능에도 관여한다.

결론

기경팔맥과 턱관절 균형의 상응관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기경팔맥은 先天之元氣에 근원하며, 人體의 균형과 조화에 관여한다.

2. 기경팔맥은 人體의 온전한 構造 유지에 주체적인 기능을 가진다.
 3. 기경팔맥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 면에서 십이경맥과 상보적 관계를 유지한다.
 4. 督脈은 하복부에서 힘의 중심을 이뤄줌과 동시에 독맥의 유주 특성은 척추의 중심을 유주하면서 인체 내 음양의 균형 및 후두부와 경추의 균형을 조절해준다.
 5. 임맥은 하복부 단전에 근원하여 전신의 중심을 이루고 척관절의 균형과 조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6. 衝脈은 십이경맥지해(十二經脈之海) 곧 혈해(血海)로서, 인체의 대동맥기능과 관련된 기혈순환과 수화작용을 통한 전신의 기능에 두루 관여하며, 하복부에서 기시하여 척의 주위 및 兩方을 타고 동공부위에 이르러 전신의 기능에 두루 관여한다.
 7. 대맥은 하복부 및 14추를 전후한 척추를 묶어줌으로써 하복부 단전이 인체 힘의 중심점이 되게 하며, 전신 및 척추에 작용하여 뇌척주 기능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경추 관절의 균형과 조화에도 크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
 8. 양유맥 음유맥은 全身 陰陽의 氣를 망라하는 그물과 같은 脈으로, 하지에서 기시하여 하복부 단전을 중심으로 인체의 모든 구조물이 흩어지거나 쏠리지 않도록 엮어 매주는 기능을 한다.
 9. 양교맥 음교맥은 人身의 운동기능을 主持하여, 인체 내 음양의 편성편쇠를 조절하고, 전신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전후좌우의 운동기능에 관여한다.
- 이상의 결과 기경팔맥은 선천지 원기에 근원하여, 인체

의 온전한 구조 유지에 주체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하복부 단전을 중심으로 인체의 전후좌우의 균형과 조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척관절의 이상적인 음양균형작용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손인철. 기경팔맥의 특징과 임상적 의의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8;25(1):39-50.
2. Henry G. GRAY'S Anatomy. London:Churchill Livingstone. 1999:526, 527.
3. 전국한의학대학교 침구경혈학교실. 침구학상. 서울:집문당. 1998:45, 111, 137, 200, 682.
4. 朴晳, 國譯 瀕湖脈學 四言學要 奇經八脈考 附脈訣考證. 서울:대성문화사. 1992:133-135, 147-150.
5. 李梴. 編註醫學入門 內集 卷1. 서울:大星出版社. 1980:20.
6.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성보사. 1980:442, 444.
7. 滑伯仁. 承澗齋 校註. 校註古本 十四經發揮. 臺北:旋風出版社. 1980:72, 75, 77-81.
8. 전국한의학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대학경락경혈학(하). 의방출판사. 2010:914, 915, 953, 1039, 1200.
9.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성보사. 1980:104-145, 148-151, 163-170, 191, 280, 349, 442, 434, 444, 463.
10. 本間祥白, 吳家鏡 譯.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85:181-182.
11. 李時珍. 奇經八脈考 : 圖解 本草綱目. 서울:高文社. 1987:1749-1772.
12. 상해중의학원 편. 침구학. 북경:인민위생출판사. 1977:60.
13. 黃龍祥. 中國鍼灸四大通鑿. 靑島:청도출판사. 2003:418.
14. 손인철, 이문호 譯. 경락도해. 서울:청흥. 2007:119, 182, 186-188, 193, 196, 287, 295, 394.